

영재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 코트디부아르



오랜 세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코트디부아르는 교육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스템이 프랑스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와 같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동에게 초등 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질 좋은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유급제도 때문에 방학식을 하는 날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잖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결정된 아동의 학부모는 한 쪽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유급이 결정된 아동의 학부모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학습 능력이 좋은 아동은 그에 걸맞는 교육을 시키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 생각되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밀알 복지재단 회원님을 통해 후원 받고 있는 키도 크고 잘생긴 마도쉐는 2년째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집중력 부족으로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벨빌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부족함을 채워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후원을 통해 벨빌 초등학교의 아동들은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방학이 끝나고 마도쉐가 2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을지,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 1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2 회원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또는 1600-0966(회원전용번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된 주소지로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소식이 발송됩니다.



두번째 이야기

코트디부아르 사업장 소식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벨빌 초등학교에서는 3~5학년에 재학 중인 50명의 아동을 선발하여 매주 금요일 1시간 30분씩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훈련을 통해 나라 사랑과 예절을 배우고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코치의 수준 높은 시범 덕분에 아동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기합에 맞춰 태극 1정을 연마하는 아동들의 절도 있는 모습은 멋진 전사 같기도 합니다. 졸업할 때에는 자존감이 높고 리더십을 가진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태권도 수업

사업장이 위치한 아비장은 경제의 중심지인 반면 국회의사당과 건국기념관이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야무스쿠로는 나라의 국정과 행정을 이끄는 중요한 곳입니다. 야무스쿠로는 아비장에서 250km나 떨어진 먼 곳이지만 아동들이 코트디부아르의 수도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51명의 졸업생과 함께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동들은 국회의원이 회의하던 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며 호기심 가득한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건국기념관에서 코트디부아르의 건국 이야기를 듣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의 회의를 지켜보며 아동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여행을 통해 아동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졸업 여행

A 도서관 개관



코트디부아르에는 아동도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책은 사치일 뿐입니다. 이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이후 경기 침체와 내전으로 '고채무 빈곤국(HIPC)'에 속하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코트디부아르의 국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닌 부모와 교사들에게 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간 매주 금요일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선생님들이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자 선생님들도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약 2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의 책장이 채워지는 만큼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도 함께 커나갈 것입니다.

생일 파티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독립해 이 세상에 나온 기적 같은 날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축하해 주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입니다. 아동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고자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축하 후원금으로 생일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동들은 고깔모자를 쓰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친구들 속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일을 축하받는 존재로 성장한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들에게 특별한 생일선물을 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캠프



좁은 교실 속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배움의 흥미를 되살리기 위해 전교생이 다 함께 캠프를 떠났습니다. 지겹기만 했던 평소의 수업과는 달리 놀이 활동을 겸한 캠프에서는 지식, 지혜와 더불어 단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실 속 엄격한 현자인 선생님 대신 한국인 선생님들과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의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캠프는 아동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아동들은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배웠던 노래와 율동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앞으로도 열린 공간에서 열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물원 견학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으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춘 동물들을 보기 위해 전 학년이 동물원으로 견학을 떠났습니다. 내전이 끝난 후 동물원은 새롭게 단장했지만 책에서 보던 동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많지는 않지만 동물원에 도착한 아동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팬지는 무엇을 먹을까 궁금해 하는 아동 뿐 아니라 코끼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동, 사자와 악어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편지



코트디부아르 벨빌 초등학교 아동들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동들은

부모가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바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님의 후원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가며 꿈을 꾸기 시작한 코트디부아르 아동들의

내일을 위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 벨빌 초등학교 손희실 이사장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COMING SOON

운동회

소속감과 단결력 증진을 위해 정체성 강화 훈련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할 예정

위생교육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생의 중요성을 교육할 예정

의사 진료

신체발달 사항 및 질병 여부를 점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예정

졸업생 연계 수업

6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9시~12시까지 불어, 수학, 영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